

일본국제문화교류재단 통신

no. 100

역대 사무국장
인터뷰

특
간

公益財団法人
国際文化フォーラム
THE JAPAN FORUM
日本国際文化交流財団
일본국제문화교류재단

역대 사무국장 인터뷰

나의 결단

1987년 6월 22일 출범 이래 26년간, 일본국제문화교류재단은 어떠한 지침 아래 활동을 전개해 왔는지,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역대 사무국장들의 지나온 항로를 되돌아 보며 내린 결단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市原徳郎

이치하라 도쿠로

1987.6-1990.12

무에서 유를 창조

재임 중의 주요 사업: 재단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발족하기까지의 제반 활동. 베이징시 청소년 일본어 콘테스트 등 중국 관련 사업. EUROPALIA 89 JAPAN (벨기에) 참가. 국제 문화 교류 정보지 『월드브라자 (월드플라자)』를 창간. 기관지 『国際文化フォーラム通信 (국제문화포럼)』발행 등

★

내가 새로운 재단 설립 프로젝트 팀에 참가한 것은 1987년 2월의 일입니다. 맨 처음 이 프로젝트는 외무성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때리기가 격화되는 한편, 해외의 일본어 학습자는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정부 입장에서 국제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민간 재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제안이라기 보다는 아주 강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의를 받은 당시의 노마 고레미치 고 단샤 사장 (제 5대)도, 제4대 노마 쇼이치 사장과

는 다른 형태의 국제 문화 교류를 추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노마 쇼이치 사장은 출판 문화에 관한 국제 교류와 아시아·유네스코 문화 센터 설립에 진력했으니까요. 1986년 7월 증역 회의에서 노마 고레미치 사장이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국제 문화 교류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것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외무성으로부터는 연도 내에 설립하기를 바란다는 전화가 빗발치듯 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진행은 지

★ 촬영: 오키 시게루

지부진하였고 그래서 결국 1월, 당시 광고국장이었던 저는 사장님께 호출을 받았고 재단 설립 준비팀을 이끌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50살을 넘어 다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재고를 바란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파트너가 모두 일본어가 가능한 데다가 세계에 일본을 알리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외무성에 저의 경력을 제출하고 제가 재단 준비실 리더가 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5월까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가 5명 정도였는데 다들 재단에 관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다가 상근 직원은 3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에 아시아·유네스코 문화 센터의 규모를 확장하는 일에 관계한 적이 있어 어느 정도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업무 인수 인계를 끝내고 실제로 설립 준비 업무를 시작한 것이 3월. 아무리 박차를 가해도 5월은 무리라고 설득을 해서 6월에 조준을 맞추었습니다. 고단샤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먼저 출연 기업을 정하고 3억엔의 기본 재산에 대한 할당을 했습니다. 설립 취지서, 기부 행위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결정하고 임원 위촉, 찬조 회원 모집, 재단 명

을 결정하는 등. 실은, 명칭은 「국제문화협력재단」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명함도 도장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평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발족 직전에 「국제문화포럼」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로서 설립 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난 바로 그날, 노마 고레미치 사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망연자실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설립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고, 400명에게 초대장도 보내 출결 확인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시 대표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인가가 떨어진 것이, 파티 전날인 6월 22일이었습니다. 스태프 전원이 필사적이었지요.

대해로의 출범

재단 설립 후의 주요 사업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큰 방향성은 결정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입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정하기 위해, 다른 재단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조사도 했습니다. 외무성으로부터의 제안도 있는 바, 출범 공연으로 일본 연구 심포지엄 「일본 문제는 존재하는가」와 일본어 국제 심



일중 공동으로 작성한 일본어 실력 시험 문제 10년 분을 모은 책자

포지엄 「제 외국에서의 일본어 교육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개최하였습니다. 일본어 국제 심포지엄은 국제교류기금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연구에 관해서는 특별히 외무성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 때りに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지식인과 해외의 연구자를 패널리스트로 하여, 일본을 이해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후 중국, 한국, 태국, 미국, 호주, 유럽 각지에서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람회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추억은 1991년 런던에서 열렸던 일본·페스티벌 「Visions of Japan 전」 기획에 협력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람회장에 오신 황태자에게 포럼의 평상시 활동과 이 기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수고하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영광이었고 황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의 국제화도 당시는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지역에서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담당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외무성이 국제 문화 교류 정보 센터를 만들테니까 기관지를 만들어 주면 좋겠



1993년, 상무이사로서 이치라 씨가 방문한 유럽 번역자 회관(독일)에서의 도서 기증 증정식. 왼쪽은 당시의 레지나·피터스 동 회관 도서부장.



베이징시 청소년 일본어 콘테스트에서는 일본어 실력 시험도 행해졌다. 사진은 회장을 확인하는 참가자.

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포럼이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이쪽에서도 무언가 중심이 되는 출판물을 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던 차에 이 건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월드프라자』의 창간입니다. 내용은 주로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교류 이벤트 소식과 세계 각지의 대사관에서 수집한 정보였습니다. 기관지라고는 하지만 외무성에서 구입하는 것은 950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쪽 부담이었기에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결국 8년 후에 휴간이 결정되었는데, 그때도 외무성 관계자는 어떻게든 계속해 주지 않겠냐며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가능하다면야 계속하고 싶었지만 자금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포럼 독립으로

오리무중 상태에서 시작한 사업은 거의 외무성과 상담해 가며 이인삼각처럼 진행하였지만, 중국에서의 일본어 관련 사업은 포럼이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스태프가 있었습니다. 방 송대학 커리큘럼과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일 마음에 남는 것은 베이징시 청년연합회와 같이 실시한 「베이징시 청소년 일본어 콘테스트」입니다. 매년 2,000명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베이징대학의 우수한 학생이 통역을 해 주었는데요. 언제나처럼 「니하오」라고 인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막간

에 「이치하라상 틀린 곳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니멘하오입니다」라고 말이에요. 아니, 지난 3년 동안 같은 인사를 해 왔는데, 라며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단발적인 것이 많았습디만, 이 콘테스트는 10회나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관계자들과 친해져 여러 사람을 소개 받아 인맥도 넓어졌습니다. 포럼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큰 사업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국제 교류라는 것은 지속해야 성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이 사업을 통해 실감하였습니다. 중국과 함께 한 것도 좋았다고 봅니다.

1991년, 거품 경제가 꺼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고단샤에서는 증가한 국제 관계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럼은 독립된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고단샤의 국제 교류 추진실에서 나온 스태프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활동을 더 한층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포럼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독립을 하자면 기본 재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당시의 노마 사와코 사장이 질문을 해 저는 20억엔이라고 답했습니다. 닛코 재단이 20억, 도시바 재단이 30억의 기본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당시 금리가 5% 이상이었기 때문에 20억엔 정도 있으면 운용 이익으로 사업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국제 교류는 지속해야 성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이 사업을 통해 실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무국장 자리를 우시지마 씨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설립 준비 때부터 횡수로 5년.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재단을 만들어,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틀은 잡힌 상태라 그 다음은 방침에 따라 사업을 가감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차세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FT**



1989년 벨기에에서 열린 「EUROPALIA 89 JAPAN」에 출전. 장서표(소장자를 표시하기 위해 도서 뒷면 표지 안에 붙이는 작은 종이 조각)를 주시하고 있는 관람자. 위의 것은 TJF가 만든 장서표. 참가자에게 배부하였다.



牛島通彦

우시지마 미치히코

1991.1-1998.3

고교생 민간 대사를 키우고 싶다

재임 중의 주요 사업: 전 중국 외국어학교 중고생 일본어 변론 대회, 중국 중고교 일본어 교사 연수회, 미국 위스콘신주 일본어 교육 지원 사업, 도서 기증, 일본 국내 고등학교의 중국어·한국조선어 교육 현황 조사 등



1994년에 중국 난징에서 열린 외국어 학교 중고생 일본어 변론 대회.

사무국장이 되고 나서 그때까지 마음 먹어 온 것들을 적극 실행해 나갔다. 크게는 세 가지.

먼저, 국제 문화 교류에 열정을 불태우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었다. 신문에 모집 광고를 냈더니 우수한 경험자의 응모도 있었지만, 과감히 미경험자 4명을 채용했다. 재단이 설립되고 4년이 흘러 체제 뿐만이 아니라, 인력면에서도 고단샤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된 무렵이었으므로, 포럼로서는 새 출발의 의미가 강했다. 같은 뜻을 지닌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배우며, 국제 문화 교류에 전력을 쏟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당시의 사업에 대한 재검토였다. 경제적 여건이 좋을 때처럼 운영하기에는 작은 재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이라 했을 때의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는 동아시아와 환태평양이 주요 거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중국과 한국, 미국, 호주이다. 연령층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21 세기를 담당하는 젊은이들, 즉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반드시 10년 후, 20년 후의 성과도 클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다.

세 번째는, 이념의 재검토였다. 당시에는 일본어의 보급, 특히 외무성은 일본어 보급을 주장했지만 우리 입장은 강요가 아니라, 서로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고등학교생들도 중국어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일본 내에서의 중국어 교육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세 가지 사항으로, 재단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과제로서는 이상적인 직장 만들기. 특히, 당시는 고용 기회 균등법이 시행되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주목 받던 때이기도 하여 여성이 일하기 쉬운 직장을 만들고 싶었다. 어떤 직장이 일하기 쉬운 곳일까 생각해 보니, 서로의 신뢰가 기본 바탕에 자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출근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 구체적으로는 유급 휴가를 100%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 생각했고, 사무실 레이아웃도 신경을 쓰고 싶었다. 여성에 대해서는 육아 지원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당시 육아 중인 스태프의 재택 근무도 인정했다. 어쨌든, 포럼은 소프트웨어가 생명이므로 공부하거나 생각하는 시간, 그러한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포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단샤에서 쪽 영업 파트에서 일해 와,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처음 4년은 국제교류기금과 일본어 교육, 중국어 교육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르침을 얻고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되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선수범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출연 기업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포럼의 역할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우선 365일 몸과 마음을 다해 국제 문화 교류에 매진하는 것이었다.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노력만큼은’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된 것은 재단 설립 10일을 남겨 두고 노마 고레미치 사장이 돌아가신 영향이 컸다. 설립을 눈 앞에 두고 생을 마감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한 사장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나 하나 정도는 포럼에서 죽을 각오로,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통해 얻어진 자신감

가장 잊을 수 없는 사업을 굳이 하나 든다면, 중국의 정예 외국어학교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변론 대회이다. 정예 외국어학교 6교(상하이, 선전, 창춘, 정저우, 난징, 우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모두가 훌륭한 스피치들이었지만, 두 번째 대회부터는 이젠 내가 그리던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로 나오는 학생은 물론, 학교의 명예를 건 교사의 경쟁이 치열했다. 너무나 빈틈없이 준비를 해 와 제목을 미리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궁리도 해 보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들 다섯 개 정도 타이틀을 예측해서 각각 스피치 원고를 만들어 전부 외워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면 스피치는 엉망이 되어 버렸다. 입상하지 못한 학생과 교사의 낙담하는 모습은 정말 안쓰러웠다. 학습을 장려하려는 것이 왜려 커다란 부담을 교사와 학생에게 안겨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회를 거듭할수록 강해졌다. 이 변론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창춘 외국어학교의 劉元松 교장 선생님의 많은 협조를 받았다. 제1회 대회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 다음 해 이후에도 개최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을, 각 외국어학교를 순회한 후, 제5회 때 다친 단계에서 변론 대회 대신 교사 연수를 열고 싶다고 劉 교장에게 말했다니, 우리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었다. 교사 연수로 바꾼 것은 「어미 새를 기르면 병아리는 자연히 자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일에서 여러 가치를 배웠다. 먼저, 劉 교장의

교육자로서의 학생들에 대한 자세, 인간으로서의 넓은 도량. 진심으로 존경하는 중국인을 만나게 된 것은 내 인생에도 플러스가 되었고, 내 생각을 알아주었다는 것이 국제 문화 교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었다.

다음은 중국의 저력을 보았다는 사실이다. 변론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사의 열기를 접하고 중국은 대단하다고, 내가 예측한 10배 100배의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변론 대회는 어디든지 있고, 우수한 학습자를 격려한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숙고하지 않으면 단지 부담만을 강요하는 일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 사업은 그 후 포럼에서 일을 하는 데 큰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큰 결단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결단이 필요했던 것은 『ワールドプラザ (월드플라자)』(국제 교류 정보를 발신하는 잡지)의 휴간이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중국인을 만나게 된 것은 내 인생에도 플러스가 되었다



『Teenage Tokyo』 스토리 만화로 일본 고교생의 일상생활을 소개했다.

다. 창간 당시에는 비슷한 잡지도 없었고 격월간이라 해도 제공하는 정보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일본의 국제화 상황도 변하고 또, 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의 기관지가 발간되었다. 그러자, 대결 상대가 되지 않았다. 자금 문제도 컸다. 하지만, 외무성에서는 계속하기를 희망했고 『월드플라자』와 관련된 프리로 활동하는 라이터도 있어서 큰 기동인 출판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저항이 이것저것 많았다.

이와 병행해서, 사회는 디지털화로 접어들고 있었다. 포럼은 그 선두에 서서 디지털화를 단행하기로 했다. 워드프로세서가 주류이고 컴퓨터는 몇 대밖에 없는 사무실 상황에서 1인 1대의 컴퓨터, 네트워크화를 단숨에 진행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월드플라자』를 계속 간행하면서 디지털화를 진행시키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였다. 인터넷이 『월드플라자』의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했다. 사무



1996년에 중국 창춘에서 열린 중, 고등학교 일본어 교사 연수회.

국장이 된 이래 계속 고민하던 끝에 6년째인 1996년에 『월드플라자』를 폐간하게 되었다.

더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은 전략적인 도서 기증이다. 많은 도서를 기증했지만(총 180개국, 약 81,000권) 기증한 도서의 상당수는 그야말로 일본을 소개하는 책이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교생 민간 대사를 세계 속에서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이에 필요한 도서를 고려해서 상대의 실정에 맞게 책을 선택해 보내고 싶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판사인 이와나미 서점은 제이 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중국의 5개 대학에 모든 신간을 계속해서 기증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업자의 일종 친선을 바라는 뜨거

운 열정이 역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전자 서적·잡지를 보낼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그리고 극동 러시아의 일본어 교육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1992년 외무성으로부터 강한 요청이 있어 일본어 조수를 사할린에 파견했던 적이 있다. 그 당시, 극동 러시아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과 기도의 연속이었다. 아무쪼록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말이다. 그때는 2년째부터는 다른 기관에 부탁을 했다. 당시는 이러한 사업을 할 힘도 경험도 없었다. 지금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에게 있어서는 도서 기증도 일본어 교육도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인적 교류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당시도 변함이 없다.

사무국장이 된 지 7년. 다카사키 씨에게 배턴을



미국·위스콘신주 애플톤의 칠드런 박물관에 있는 초등학생의 사진 패널. 「겐타로 군의 하루」와 학교 가방, 필통 등을 기증했다. 왼쪽은 당시의 다카사키 노부카즈 상무이사, 오른쪽은 당시의 이토 유키오 미국 대표 연락원.

넘겨 주기로 했다. 나로서는 하고 싶은 일도 남아 있었지만, 다카사키 씨는 그 시대에 중국어를 대학에서 전공하였고 포럼으로서의 최고의 인선이라 생각했다. FT



高崎 孝

다카사키 다카시

1998.4-2003.3

「이어가는」 작은 힘

재임 중의 주요 사업: 사진 교재 「であい(데이아이): 7명의 고교생의 진솔한 얼굴」을 작성, 고교생 포토 메시지 콘테스트 실시, 중국 중학교 일본어 교사 연수회 실시, 중국 중학·고교생 용 일본어 교과서 편찬 사업 지원 활동, 일본 고교생 중국어·한국어 교육 지원 활동

제가 사무국장에 취임을 하고 가장 먼저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재정 문제입니다. 처음 기본 재산을 20억엔으로 설정한 것은, 금리가 5~8% 정도라는 1980년대 상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온 98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려지기 시작할 무렵으로, 불경기가 만성화되어 금리도 제로에 가까웠지요. 20억엔이 있어도 금리만으로는 운영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출연 기업에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 지원자도 찾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국제재단(현, 미쓰비시UFJ국제재단)과 도쿄쿠라부. 물론, 상대 쪽 목적과 합치하여야 하므로, 중국의 청소년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후호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플랜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조성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메인이 되는 출연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황이었고, 더군다나 출판 업계는 타격이 훨씬 컸으

니까요. 예산을 편성하는 계절이 되면 정말이지 불편했어요. 상무이사인 다카시마 씨와 둘이서 절충을 했는데, 자금을 대는 쪽 입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되새긴 말은 「계속하는 것은 힘이다」. 이것은 제가 사무국장 직을 맡았을 때 노마 사와코 회장 (출연 기업 사장으로서 입니다만)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소규모 재단이지만, 하는 사업은 견실합니다. 이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지요.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힘입니다」.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처음 간 출장은 1999년 7~8월, 중국 동북 3성(지린성, 헤이룽강성, 랴오닝성) 세 곳에서 열린 중국 중고교 일본어 교사 연수회였습니다. 스태프가 고심하여 편집하고 일본에서 인쇄 및 제본한 오리지널 교재를 ANA가 수송했는데, 랴오닝성 다롄 세관에서 반출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중국은 출판물에 대한 통제가 아주 엄격합니다. 마음대로 출판물을 만들어 인민에게 배부해서는 안 됩니다. 포럼에 오기 전 출판사에서 중국 판권에 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설마 연수회에서 사용하는 150부밖에 안 되는 텍스트에까지 적용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텍스트는 다롄에서 급히 구한 종이에 새로 인쇄를 했습니다. 이 연수회에 참가해서 안 사실은, 중국의 일본어 교사가 처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본어와 교수법의 레벨이 제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잔을 주고 받으며 친근감을 쌓는다.

진짜 교류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가 아닐까요

교사들은 연수를 받을 기회도 없고 지원 태세도 교재도 빈약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포럼이 제공하는 연수는 아주 주요한 기회였으며, 교사들의 고마워하는 마음도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듬해부터는 내몽골 자치구에서도 개최를 하게 되어, 12월에 준비를 위해 출장을 갔습니다. 영하 30도의 초평지에서, 교정에 물을 뿌려 열린 스케이트 링크에서 교장 선생님, 학생들과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또, 지방의 교육 관계 요인과의 회식을 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중국, 특히 지방의 경우, 같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허물없이 흥금을 털어 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되어야만 하지요. 더욱이 대 외국 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실력자에게 인지도가 있으니까요. 이쪽에서도 사무국장 정도가 나가지 않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언어에 대한 존재 의의

그렇게 연수는 확대해 갔지만, 한편으론 1980년대의 일본어 붐은 이미 지나가 버려 중국에서도 일



한국어 교사 연수회가 계기가 되어 교사 네트워크 JAKEHS가 탄생했다.



1997~2006년에 실시한 「고교생 포토 메시지 콘테스트」의 입상 작품 등을 사진집에 정리했다.

본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감소해 갔습니다. 세계 동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만이 외국어라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수의 민족이 한 곳에 모여 함께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게 당연한 시대이니 공통 언어가 필요한 건 마땅합니다. 그것이 영어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류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가 아닐까요.

포럼에서 일하게 된 후, 중국에서의 일본어 교육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국내의 중국어 교육 사업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과연 포럼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럼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포럼이 중국의 일본어 교육이라던가 일본의 중국어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럼」이라는 명칭으로는 아시아라는 말을 연상하지 못 하니까요. 그 후 얼마 안 있어 한국어 교육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일본어와 중국어의 관계는 확실히 정립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의 말, 한국어와 일본어와의 관계는 약간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담당자와 한번 크게 해 보자고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로하여, 발동이 걸렸습니다. 이웃

나라 언어라 하면, 러시아어도 그렇지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인적 문제와 자금 문제로 이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스태프를 전폭적으로 믿었다

프로젝트에는 별로 참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전

문 스태프의 방식이 있잖습니까. 저는 돌연히 속 나 타난 것이잖아요..... 하지만, 담당자들과 행동을 같이 하며 곧 사업에 대한 이해도 깊어 졌고, 스태 프에 대한 신뢰감도 강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은 대 단히 적극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스태프들에게 배워 방침과 취지를 충 분히 이해한 다음 조언은 했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간섭은 안 하는 편이 활기차게 일을 진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방법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5년이 흘러 임기가 끝나고 전문인인 나카 노 씨에게 자리를 인계했습니다. 그 당시 나카노 씨 의 역량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마음이었어요. **FT**



中野佳代子

나카노 가요코

2003.4-2011.3

사람을 잇고 문화를 잇는 사회를 만든다

재임 중의 주요 사업: 중국 일본어 교재 『好朋友』 제작, 「외국 어 학습 표준」작성 프로젝트, 세계 중고생 교류 사이트 「つながーる(Tsunagaaru)」개발 등



미국·위스콘신주 초등학교에서 수업 견학.



포럼 발족 3년 후인 1990년, 저는 국제 문화 교 류 사업에 종사한 경험으로, 재단 운영에 관한 조 언을 부탁 받아 비상근으로 포럼에서 일하게 되었 습니다. 당시 포럼은 고단샤 관계자가 운영하고 있 었는데, 그 2년 후, 재단의 독립이라는 제 2 창업을

준비하면서, 인사·재정·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전 문 직원을 채용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그즈음에 저도 상근으로 근무하게 되었습 니다.

사업의 대전환을 도모한 1993년 3월의 이사회·

평의원회는 저에게는 잇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단 설립 취지는 「언어와 문화」를 핵으로 한 국제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이었지만, 일본어·일본 문화를 해외 에 보급하는 것이 사업의 주축이었습니다. 저는 문 화 교류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의 바람직하다

는 생각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일본어 교육을 촉진 하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 상대의 언어, 특히 아시아의 언어를 일본에서 촉진시킨다. 언어 교육도 문화 교류의 일환이라는 위치 설정을 하고, 문화 소개 사업과 연결하면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이해를 위한 언어 교육이라는 사업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당시의 사무국장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사무국장과 함께 이사·평의원 분들을 방문하여,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사회·평의회에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승인을 받았습시다만, 그 후 사업에 대한 큰 사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사업 부장을 거쳐 사무국장이 되었을 때에도 나의 원점이 되었습니다.

「문화 교류는 사람으로 시작되어 사람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므로, 문화 교류는 사람들의 생활상과 사고방식, 미의식, 가치관의 교류입니다. 국제 문화 교류 사업에 의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연결되는 것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문화의 중핵인 만큼, 일본어 또는 외국어를 배워 사용함으로써 언어 화자와 상호 깊은 이해를 하고, 이어지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법과 어휘를 무작정 외우는 식의 언어 교육은 포럼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더욱더 문화를 수용하

는 언어 교육. 문화 이해와 교류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비로소 언어 교육은 문화 교류가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확고한 비전과 이념을 가지고,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독창적인 사업을 개척하는 정신을 늘 가지고 싶었습니다. 작은 조직이라도 빛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큰 단체에 비해 자유스러운 민간 재단은 전례가 없는 선진적인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무국장이 되어

2003년도에 사무국장이 되어서도, 사업에 대한 열정과 사고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사업 이외의 총무·재무에 쏟는 에네지 비중이 당연 커졌습니다. 포럼의 강점을 살려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스태프, 사업에 협력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재단 운영과 사업에 자금을 제공해 주는 기업과 단체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재를 키우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은 작은 조직이므로,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재단 전체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개인의 장점을 살려서 사업 이념을 공유하며 실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문화 이해와 교류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비로소 언어 교육은 문화 교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임기 후반에 들어서, 스태프에게서 올라온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채용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 만큼 질 높은 아이디어와 기획이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스태프와의 상호 연계로 사업을 결정해 나갔습니다.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내 생각이 구체적인 사업이 된 것은, 2001년의 사진 교재 「であい(데아이): 7명의 고교생의 진솔한 얼굴」, 2009년의 일본어 교재 『好朋友(하오평유)』제작, 2012년의 「외국어 학습 표준」의 개발입니다. 나중 두 가지는 사무국장이 되었지만, 제 담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열을 쏟았습니다. 하나하나를 제작할 때마다 제 자신의 컨셉이 버전업 되었습니다. 여러 사업에서 습득한 것들을 「데아이」, 『好朋友』에 쏟아 부어서, 그것이 「학습 표준」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아이」에서는 「언어 학습」과 「문화 이해」에 「인간 이해」를 더하고, 이 세 가지를 학습 목표로 하여, 교재에 등장하는 7명의 일본 고등학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본어와 개인의 배경에 있는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2005년 일본어교육학습원
구센터 개소식에서, 다렌시
교육국의 王 부국장(당시)
과 함께.

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축적에 기초를 두면서, 지금 세계 교육계를 석권하고 있는 OECD의 핵심 역량 (Key competencies) 을 신속하게 언어 교육에 도입하여 인간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 것이 『好朋友』입니다. 그리고 이는 「학습 표준」의 틀 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습 표준」에서는 「남을 알고 자신을 발견해 이어짐을 실현한다」는 것을 외국어 교육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학습을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배운 외국어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들과 이어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학습 표준」은 문화 교육으로서의 언어 교육을 형태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현장에서 교류까지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포럼이 일중 고교생 여름 캠프와 같은 교류의 장을 견고히 만들어 가면, 문화 교류로서의 언어 교육이 보다 선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

지금 열거한 세 가지 사업은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했는데 활동에 필요한 조성금을 지원하는 재단과 기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포럼을 신뢰하고 함께 꿈의 실

현을 향해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好朋友』는 일중 공동 사업이었던 것만큼 기적적인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2005년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어를 개강하는 학교가 격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라오닝성 교육 행정 관계자와 일본어 교육 관계자를 초빙하였습니다. 일행 중의 한 명인 다렌시 교육국 王允慶 부국장에게, 일중 간의 상호 교육을 촉진하여 이로 인해 일종의 젊은 세대를 잇고 싶다고 하자, 내 뜻이 바로 그렇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한으로 가능한 일을 먼저 해 봅시다. 바다를 사이에 둔 청소년들이 이로써 조금이라도 가까워 진다면 내가 할 일이지요, 그리고 인생도 의미 있어 집니다」라고. 중국 교육 행정 관계자와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好朋友』제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어 교육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

문화 교류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상호 언어 교육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글로벌 사회가 실제로 이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다언어 다문화 사

회, 그리고 복수 언어 복수 문화를 가진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실감합니다. 시대, 사회 상황에 맞추어 의도를 가진 문화 교류 사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포럼에서 젊은 세대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종사하면서, 큰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일중간이라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에는, 토대로써 상호 간의 언어와 문화의 이해·공유화가 필요 불가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개국 상호 교육 제도 안에 이에 대한 위치 설정을 하고 상호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이야기로 들리지 모르지만, 한 민간 단체로서 구상한 모델을 만들어 보일 수는 없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토대와 사고의 틀은 마련되지 않았나 봅니다만, 앞으로의 포럼 활동에 기대를 겁니다.

앞으로도 포럼이 중심이 되어 같은 뜻을 지닌 단체와 사람들의 힘을 결집시켜, 행정에도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양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꼭 보좌해 온 미즈구치 씨가 새로운 길을 열어 가며 큰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FT



사진 교재 「であい(테아이)」, A3판 사진 시트 192매와 책자, CD로 구성된 이 교재는 총 중량이 10킬로그램을 넘는다.



水口景子

미즈구치 게이코

2011.4

함께 만들어 간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중고교생 교류 프로그램, 『외국어 학습 표준』 『好朋友』 「Click Nippon」 활용을 위한 교사 워크숍 실시

육 관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다양한 언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 표준」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학습 표준」의 생각에 공감하는 8개 언어의 교사를 대상으로 마스터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준 마스터」라 불리는 교사들이 앞으로 각지에서 「학습 표준」강좌와 워크숍을 열어 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표준』 『好朋友』 개발을 인프라 정비라 한다면 제가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이지요. 개발하는 데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도 인프라 정비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 붓고 싶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임무는 다양한 문화 배경,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가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앞으로의 시대에, 함께 하는 힘을 젊은이들에게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란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동력, 정보 활용력, 콜라보레이션 능력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힘을 기르는 데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단지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장을 만드는 것이 우



사무국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외국어 학습 표준』 『好朋友』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념을 형태화한 것이지만, 형태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 현장에서 사용되어야 비로소 목표를 달성하게 되므로 이를 추진해 가려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학습 표준」에서의 대상 언어를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모든 외국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중국어 교육 사업 담당자였을 때에는 다른 기관이 하지 않는 중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되어 전체를 둘러보았을 때, 2개 언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학습 표준』은 「중국어와 한국어 교육으로부터의 제언」이라는 부제를 달아 출판하였습니다. 「학습 표준」의 제안을 넓혀 가기 위해서는 모든 외국어 교육 종사자들이 힘을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습 표준」은 이를 위한 공통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어 교

사와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시작된 2009년에는 벌써 이런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만, 모든 외국어를 대상으로 한 첫걸음은 2011년 여름에 개최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각 언어 교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SEOUL で 댄스·댄스·댄스」 보고회에서 댄스를 피로하는 모습

리의 큰 임무라 생각합니다. 이때에 같은 생각을 지닌 교사들과 함께 장을 만들어 가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한때를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전하고 서로 조정하여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중 고교생 여름 캠프, 한일 중고교생 교류 사업, 협동을 이루어 내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서는 언어 교육과 교류 학습, 정보 교육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을 만드는 데에는 해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본을 발신하는 「Click Nippon」 웹 사이트를 활용해,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과 발신력

을 기르는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교사들과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제가 사무국장이 된 시기에 TJF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이행하였습니다. 「공익」이란 책임감은 예상외로 무거웠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잘못을 하게 되면 법인은 해산되고 재산은 몰수되어 버립니다. 공익이란 어떠한 것인가, 공익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폭넓게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보다 사업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TJF는 작은 조직입니다. 같은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 오래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식이나 발상이 같아지기 십상입니다. 담담이 아닌 프로그램에 관계함으로써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개개인이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사업이 만들어지니까요.

우리는 연구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독선적이지 않도록, 스스로 배우면서, 같은 뜻을 지닌 분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콜라보레이션하는 장을 만드는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임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FT

편집 후기

보통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스태프들의 얘기와 역대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와 사회 상황에 발맞추어 변해 온 사업, 변하지 않는 마음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임무에 공감하는 여러분과 이어져 있는 것은, 이 책자에 소개한 스태프 10명 + ……입니다. 자신 있는 일도 좋아하는 일도 다르고, 가진 생각도 각양각색, 하지만 커다란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러한 집단이기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천공을 유전하는 별처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미즈구치 게이코

(2013년 12월에 발행한 「国際文化フォーラム通信 no.100」을 번역하였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화교류재단
우편 번호112-0013
Ottawa YK Bldg. 3F, 1-17-14 Ottawa,
Bunkyo-ku, Tokyo, Japan
Phone : +81-3-5981-5226
Fax : +81-3-5981-5227
E-mail : forum@tjf.or.jp
www.tjf.or.jp

특 집

역대 사무국장
인터뷰





특
집

10×10 +10...

발행인·内藤裕之 / 편집인·水口景子
디자인·gfd (山本義明)
DTP·音羽印刷株式会社 (李文盛)
번역·秋賢淑、金成恩
인쇄 제본·凸版印刷 (株)
사진·大木茂 (네팔 포카라에서 촬영)

내가 편애하는 것

배낭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베이징에 유학할 당시 무거운 교과서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주위 학생들을 보니 모두 배낭을 메고 있기에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져 저도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해 보니 정말로 가볍고 편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애용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배낭으로 정장에도 코트 위에도 물론 메고 다닙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보기 흉하다고 그만두라고 했지만 지금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모닝 코트를 입을 일이 있었는데 이때만큼은 저도 배낭을 포기했습니다. (웃음)



5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독특한 사람과 잘 사귀는 것. 조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과묵하고 무뚝뚝하여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과 잘 사귀어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조직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9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베이징대학교에서 4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중국어를, 이후 살릴 기회가 없다는 것. 그렇다기 보다는 중국어로 말할 용기가 통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6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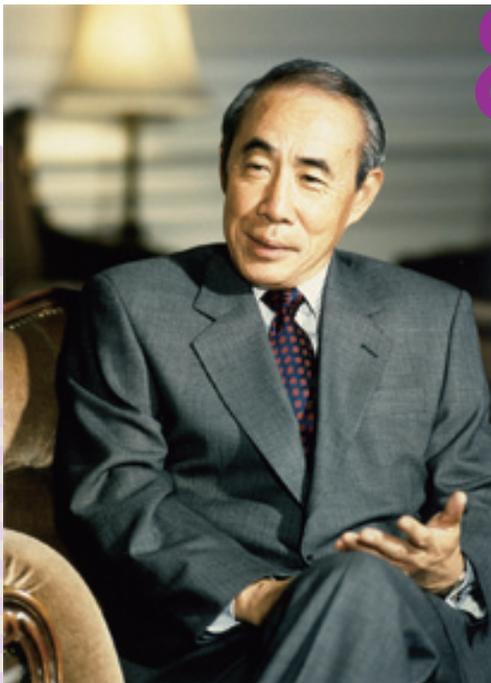
러시아 고등학생 일본어 교육 촉진 사업!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본 고등학생들을 위한 러시아어 교육 촉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이웃 나라이며 러시아 일반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97년까지 대사로 재직하였을 때부터 그 열기를 느낍니다.

10

8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재외 공관에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외교관은 천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외교관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와타나베 고지
일본경제신문사 (공저)

최고의 오피스 런치

이전 TJF의 니시신주쿠 오피스에 베이징대학교의 유학생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먹은 도시락입니다. 저는 2005년에 4개월 정도 중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北京大学國際關係學院)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나이 칠십이 넘어서 간 유학이었습니다만 이웃 나라를 새롭게 그리고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중국어의 성조, 간체자와 사투를 벌이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때 크게 신세를 진 분이 K교수였습니다. 입학 절차부터 살 집까지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K 교수님의 제자들이 베이징대학교와 자매학교인 와세다대학교에 단체 유학을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일본에 귀국한 후 우리 TJF 오피스에 초대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그림고도 좋은 추억입니다.

2

渡邊 幸治

이사장 · 와타나베 고지



1

내가 쓴 기사

TJF의 『사업보고 2005-2006』에 쓴 인사말입니다. 현재도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일중, 일한 관계는 험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쯤으로 보이는 한 어린 소녀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소녀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일본인은 구이쯔(鬼子: '나쁜 놈, 미운 놈' 이라는 의미. 특히 일본인을 비하하는 말)라고 배웠는데 아저씨는 다르네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바로 풀뿌리 외교의 원점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만남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 흘린 그날

TJF 설립 20주년 리셉션에는 언어 교육과 국제 교류 등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을 비롯해 실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열정, 그리고 여러 분들이 TJF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니, 지금까지 TJF가 작지만 선구자적인 역할을 잘해왔구나라고 몹시 감동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

4

깜짝 놀란 사건

2012년 3월 3일에 열린 『외국어 학습 표준』 (TJF발행)의 완성 기념 심포지엄에 많은 분들이 모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완성되었을 때 읽어 보았는데 상당히 설명이 난해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줄 것인지, 심포지엄에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회 인사말을 하려고 앞에서 보니 200명 이상의 인원이 회장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일에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7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조직에서는 역시 「和(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목표로 해 온 것입니다.

和



3 **눈물 흘린 그날**
 "SEOUL ㄷ 댄스 댄스 댄스" 참가자로
 부터 감사 인사로 코르크 보드를 귀국
 후 보고회에서 받았을 때.

최고의 오피스 런치

포럼에 부임하여 처음으로 업무집행이사과 사무국장과
 먹은 오토와에서의 점심.

맹렬한 더위로 3명 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맥주 주
 세요…….

오후부터 그날의 일은 여러 규정 체크. 취업 규정 제 13
 조를 보고 응징. 제 1 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근을 중지 또
 는 퇴근을 명할 수 있다. (1) 술기운이 도는 등 풍기 질
 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와웃…….

謝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사회의 '사' 가 될지, 감사의 '사'
 가 될지는 오직 신이 아실 뿐입
 니다.

깜짝 놀란 사건

TJF(국제문화교류재단)는 사실
 교육 교류 재단이었던 것.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모르는 동네에서 맛집을 찾아내는 직감력, 이라면 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JR 야마노테선의 모든 역에 좋아하
 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부에는
 즐겨 찾기가 159점포. 교토, 원헨, 파리, 도쿄 이외의 좋
 아하는 가게가 180 점포 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인지 적
 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리품을 팔아 찾은 가
 게들입니다. 가게 외관과 차림표만으로 도전해 얻은 성과
 입니다.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단기로 외국인 어학
 코스에 다니던 때의
 독일 만하임 시내 전
 철의 정기 승차권.
 이런 시대도 있었습
 니다.



10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합숙. 다같이 훌쩍 밤을 새가며 이야
 기해 보고 싶다는 아이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이렇게 프로 집단이라는 걸 모르고 취임 후 첫 회의에서 자기 소개를 한국어로 한 것. 부끄럽다. 독일어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남부 사투리로 했으면 완벽했을 터.

6

1 내가 쓴 기사

도사쿠 야스히코(當作靖彦) 선생님의 저서 『NIPPON3.0의 처방전』 책띠에 쓴 문구. 무슨 말을 썼는지는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内藤裕之

사무이사 · 나이토 히로유키



5

내가 편애하는 것

☆여행이나 출장 간 국가의 지폐와 동전 중 예쁜 것을 모든 종류 모아요. 특히 제일 낮은 단위의 금액의 돈을 좋아해서 중국의 열자오(2角 : 30원) 지폐나 각국의 유로 동전들을 모으고는 기뻐했습니다. 유로는 지폐는 똑같습니다만, 동전은 국가 별로 뒷면이 다릅니다.

☆시장이나 백화점 지하에서 그 지역에서밖에 구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식재료를 찾아봅니다. 특히 해산물과 버섯. 오시쓰케(Skilfish), 오지산(Manybar goatfish), 핫가쿠(八角, star anise), 규리우오(Arctic rainbow smelt), 즈가니(Japanese mitten crab), 구리가니(Horsehair crab), 우미타케(海茸: 버섯이 아니예요. 조개입니다), 이타야가이(scallops), 야코가이(Great Green Turban), 아미카사타케(Morel), 라쿠요(Suillus grevillei), 도라마키타케(Brown winter mushroom), 구리타케(Brick Cap), 아마부시타케(lion's mane mushroom), 고타케(sarcodon aspratus).....

☆해외 여행한 나라의 수는 独逸(독일), 奥太利(오스트리아), 瑞西(스위스), 盧森堡(룩셈부르크), 葡萄牙(포르투갈), 英吉利(영국), 仏蘭西(프랑스), 伊太利亚(이탈리아), 丁抹(덴마크), 阿蘭陀(네덜란드), 瑞典(스웨덴), 諾威(노르웨이), 芬蘭土(핀란드), 拉脫維亞(라트비아), 蘇聯(소련), 露西亜(러시아), 洪牙利(헝가리), 土耳古(터키), 한국, 중국, 홍콩, 대만, 加奈陀(캐나다), 瓜姆島(괌). 헤아려 보니 24 개국이네요. 독일어 권을 여행한 횟수는 기억도 못 할 정도인데, 亜米利加(미국)에 간 것은, 광 이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布哇(하와이) 조차 안 가 봤어요.

☆하쿠쓰루, 유즈루, 하쓰카리, 아케보노, 호쿠리쿠(北陸), 이즈모(出雲), 기이(紀伊), 긴가(銀河), 아사카제, 사쿠라, 미즈호, 후지(富士), 하야부사, 아카쓰키, 나하, 수이세이(彗星), 요조(明星), 긴세이(金星). 모두 없어서 버린 그리운 야간 침대 열차입니다. 탈 수는 없었지만 헤드 마크의 촬영만은 했습니다.



水口景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1996년 겨울, 중국 동북부의 3개 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처음 다롄의 연회에서 나온 것이 백주, 알코올 농도가 38도인 증류주였습니다. 여기에서 마신 것은 작은 잔에 한 두잔. 다음 선양에서는 좀 더 큰 잔으로 세, 네잔. 그리고 마지막은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州都)인 연길에서의 연회 때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11명이 원탁에 둘러앉았는데 같이 앉으신 분들이 어찌나 술을 권하는 데에 능하시던지요. 결국 테이블에 앉은 전원과 건배 하고……. 깨어 보니 호텔 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즐거운 연회의 후반이 어찌되었는지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과음으로 필름까지 끊기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별명은 그날 이후 「사게구치(酒口)」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다짐했지만 지금도 기억이 애매모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웃음)

6



깜짝 놀란 사건

포럼이 조사를 위탁한 한 연구소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TJF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회의 중 커피를 들고 오시는 분은 항상 남자 스태프였습니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경험한 직장에서는 항상 차를 내오는 것은 여자 분이었기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4

눈물 흘린 그날

포럼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에 관한 조사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쓰는 것에서부터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원고 마감이 가까워오며 따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멎고 점점 막막해져 왔습니다. 나 자신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후 선배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원고를 마무리하고, 완성된 책을 손에 쥐고 흘린 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

○○라면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에 관해서라면 맡겨 주세요.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가 알아서 대답해 줄 겁니다. 한자 읽기가 특수한 고즈카타(*不来方)고등학교나 구니지마(*柴島)고등학교도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중국어 선생님만 해도 300명이 넘을 겁니다(조금 과장해서?). 선생님들에게는 불도저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서포터로 남고 싶습니다.

9

7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朗의 주된 의미는 두 가지. 그 중 하나 「밝고 쾌활하다. 목소리가 밝고 크다」는 그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맑고 깨끗하여 흐림이 없고 상쾌함」은 제가 목표로 하는 제 자신입니다.



8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달리(?) 약간은 귀여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편과의 교제도 이력저력 35년이 되었네요. 일을 계속하는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쓴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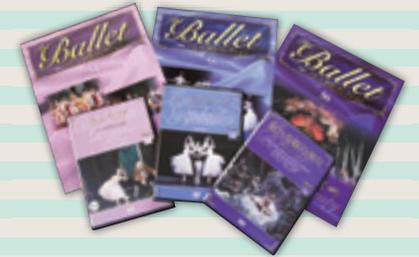
『国際文化フォーラム(포럼)통신』에 게재했던 칼럼 「일본 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 현장으로부터」라는 첫 회 기사입니다. (칼럼은 no.22부터 「아시아의 언어를 배우다」로 명칭을 바꾸고 24회동안 6년간 연재.) 학교에 취재를 가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해요. 더군다나 처음 제 이름으로 나간 기사였습니다. 900자가 좀 안되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몇 시간, 아니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제 마음 속에서는 지금까지도 베스트1입니다.

1

최고의 오피스 런치

돗토리에서 먹은 바위굴. 그날은 버스로 고베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출발 시간 직전에 제철 음식인 굴을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역 지하 식품 코너까지 뛰어간 상사. 돌아온 상사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건 역시 좋게 잘라 온 굴과 돗토리가 명산지로 유명한 지쿠와(ちくわ, 구멍 뚫린 대롱 모양의 어묵), 그리고 맥주.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2



DeAGOSTINI 간행

10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사실 TJF 사무소를 도쿄 이외의 지역에 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어렵기 때문에 일의 대상 지역에 기간 한정 정리의 SOHO를 두고 일을 하면서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쓰기현

5

내가 편애하는 것

로스햄의 비켓살. 어렸을 때부터 햄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기부터 먹곤 했습니다. 역시 흰 부분이 많은 로스햄이 최고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 비게 덩어리들이 쌓여 점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어요!) 알고 있지만 그만둘 수가 없네요.

흠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재미있구나~
즐겁구나~
맛있네~
이렇게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7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오는 것이 너
무나 기대되는 <두근두근>을
실현하기! <권한 위임> + <책
임> + <평가>의 구조를 만들
어 더욱 역동적인 조직을 만
들겠습니다.

10

OO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기 쉽고 간
단하게 설명하는 것. 관
심을 가지면 철저히 파고
드는 것.

9

최고의 오피스 런치

평일, 항상 가는 가게에서 시키는 보통의 정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런치는 사무소 근처의 중국요리집 永盛
昌의 찹가합(炸茄盒, 가지튀김). 중국 북부 지방의 요리로, 보기에는
고구마 튀김처럼 보입니다. 한입 깨물면 껍질, 가지, 돼지고기가 층으
로 되어 있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놀랍게도
달콤한 팔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운을 남기는 맛의 비밀!



My Favorite Food

2



藤掛敏也

후지카케 도시야



내가 쓴 기사

『Takarabako』의 Japanese Culture and Daily Life 코너에서 취
재하고 기사를 썼던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

▼만가킷사(만화방 + PC방)
시부야에 있는 만가킷사 취재. 사진 속 모델에게도.
<http://www.tjf.or.jp/eng/content/japaneseculture/27mangakissa.htm>

▼아키하바라에서 세계로!
아키바게, 덴샤오토코(電車男), 아키하바라붕이었어요.
<http://www.tjf.or.jp/eng/content/japaneseculture/30akiba.htm>

눈물 흘린 그날

고등학생들이 친구를 모델로 한 사진과 에세이로 참여하는 「고등학생 포토 메시지 콘테스트」(1997~2006)를 담당했었습니다. 매년 같은 촬영자와 모델로 참가하는 페어가 있었습니다. 첫해에는 둘만의 세계를 얻은 안도와 기쁨이, 2년째는 그들만의 세계가 신뢰와 기쁨으로 가득

3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에 도착한 사진은

모델인 학생이 학교 축제에서 촬영자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웃는 얼굴로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참

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통곡하고 말았습니

다. 둘이 안고 있던 아픈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음 속의 구름이 걷히고 바깥 세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구나라고, 사진을 계속해서 봐 왔던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둘의 성장을 느끼며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이 포토 메시지 콘테스트로 실감한 것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생기게 하는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8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리틀 리그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몸이 작고 발이 빠르지도 않고 특별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겠던지 부모님이 나서서 자청해서 코치직을 맡으시는 바람에 결국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비가 내리고 연습이 취소되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야구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인도어(indoor)파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NHK 방송에서 「고등학생 포토 메시지 콘테스트」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문의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대기하는 날 지각. 결국 방송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호의가 나의 지각 때문에 전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한심하고 창피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이발소에서 머리를 거의 뺏빱 밀다시피 깎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가족들이 "머리 깎는 것으로 반성이라니 아이나 하는 짓"이라고 차갑게 힐책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

6

Coffee Time



5

내가 편애하는 것

다도가와 같은 정신과 과학자와 같은 탐구심으로 커피를 끓여 마시기. 물을 끓이고, 콩을 갈아 저와 집사람, 2 인분의 커피를 끓입니다. 매일의 삶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마음이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깜짝 놀란 사건

사진 교재 "Deai(데아이) : 7 명의 고교생의 모습" (2001년 발행)의 취재로 방문한 홋카이도의 농장에서는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낙농 현장은 가혹합니다. 먼저 놀란 것은 소가 몹시 민감하고 섬세하다는 것. 축사에 들어가자마자 거뿔 포도와 같은 검은 눈으로 일제히 외부인인 저를 바라봅니다. 수의사가 소의 엉덩이(?)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는 와중에 옆에서 "우유를 짜는 소는 모두 암컷이고 임신했어. 인간이 계획적으로 임신시킨 것이지.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젖을 짜주지 않으면 소는 죽어 버린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현장감에 압도되어 취재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데카이도(일본말로 '크다'라는 뜻) - 홋카이도.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통감했습니다.

4



室中直美

무로
나카
나오
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20 대 끝 무렵에 어느 대(大)선생님과 대화 중, 단순한 농담으로 "○○선생님께서는 △△계의 막후 인물이시네요~!" 라고 말실수를 해 버려 싸늘한 침묵이 흘렀던 것. 이런 말을 해서 도대체 선생님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건지!?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기억날 때마다 부끄러움에 기절할 것 같습니다. 관대한 선생님은 물론 그 후에도 변함없이 TJF의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6



내가 쓴 기사

1

사진 교재 "Deai : 7 명의 고교생의 모습" (2001년 발행)의 마이 스토리. 문장은 유치하고 불품없지만하지만 취재에도 글쓰기에도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밀착 취재를 하러 몇 번이나 학교와 집으로 찾아가고, 때로는 집에 묵으면서 (여자만!) 인터뷰했습니다. 사춘기 고등학생들의 취재는 상대로부터 항상 "이 사람은 믿어도 괜찮을까. 정직하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내가 상처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가 끝나면 매번 지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인간 관계나 장래에 대해 흔들리는 마음 등을 말해 주지 않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 지역 사회 분 등 주변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여쭙고 촬영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재미를 느꼈던 한편, 상대와 관계를 쌓아가며 이야기를 끌어내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능력 부족에 참으로 많이 의기소침해 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분들과 깊이 관계를 맺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오피스 런치

2

최고의 런치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사무실이 니시신주쿠 고층 빌딩가에 있던 시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피곤하지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때에 바로 옆 하얏트 리젠시 호텔의 레스토랑 '酒肴 omborato'에서 2,000 엔 정도의 초밥을 먹는 작은 사치를 누렸습니다. 신주쿠 중앙 공원 쪽으로 난 큰 유리창이 있는 시원하게 뚫린 공간에서 초밥을 기다리면서 창문 밖 나무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건

그게 아마 1999년 가을이었던 것 같다. 나와 N 사무국장은 맨해튼 거리에서 택시를 내렸다. 나의 첫 뉴욕 방문! 고풍스러운 건물이 늘어진 거리를 옐로우 캡이 달려간다. "영화 같고 멋집니다! N 님!" 뒤돌아보니 거기에 N 사무국장의 모습은 없었다. 필사적으로 N 사무국장을 찾았다. N 사무국장은 자동차와 함께 거리 한복판을 질주하고 있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재빨리 뒤를 쫓았다. 의외로 (죄송합니다) 빠른 N 사무국장. 한때 단거리 선수였던 나도 좀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단체 대표 분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초조해졌다. 그 순간 200m 정도 전방에서 N 사무국장이 뛰는 것을 멈추더니 신호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접근, 창문을 두드렸다. 곧 택시의 트렁크가 열렸다. 다음 회의 자료가 들어있던 여행 가방을 방금 내린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이었다. 나중에 "우로나카 씨도 참, 글세 내 뒤를 쫓아 달려오는 거 있죠? 호호호"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쫓아가게 되지요!

4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신체로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북, 류큐 무용, 오키나와의 노래와 산신(약기), 일본의 민속 예능 춤, 중국 무용 등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 봤습니다. 지금 그 꿈은 어디로.....

8

눈물 흘린 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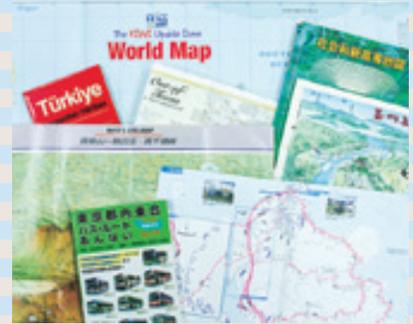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에는 화나거나 웃거나 흥분하거나 할 뿐.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귀여운 구석이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노화로 눈물샘이 느슨해졌는지, 교류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고등학생들이 열싸 안고 눈물을 펄펄 쏟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눈가가 촉촉해져 옵니다. 젊다는 것은 참 좋네요.

3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지도 love도(度). 일본 지도로도 세계 지도로도 철도 지도로도 항공편 맵으로도 지형을 내려다 보거나, 세세한 마을의 이름을 하나씩 쫓아가며 몇 시간이라도 싱글빙글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9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자동차로도 좋고 기차로도 좋고, 비행기로도 배로도 이동하는 시간이 여윌 때부터 좋습니다 (통근, 통학은 제외). 왠지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가고시마 → 효고 · 오사카 → 도쿄 → 중국 → 도쿄로 삶의 터전이 바뀌어 왔습니다. 또, 한번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타입입니다.

7



내가 편애하는 것

안경 프레임과 렌즈 사이의 좁은 틈에 끼인 때를 종이 조각의 모서리를 사용하여 파내는 것. 종이 조각이 필요한 각도로 틈에 비집고 들어가 검은 얼룩 덩어리가 쏙 빠져 나왔을 때, 혼자 작은 성취감과 기쁨에 빠집니다.....

5

10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를 잘 이용하여 집, 카페, 여행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고 싶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8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1 학년 때만 참가 했던 경기댄스부. 신인전에서는 최 하위로 입상했습니다. 문화 부 계열의 서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니 완전 열심인 체육회 계열이었습니다.



9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지만 방향치라면 지지 않습니다! 지도를 읽을 수 없는 여자 그말 그대로입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교실 간 이동도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넓은 캠퍼스에서 언제나 헤맸기 때문입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려고 하면 어느 문에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갈 때는 괜찮지만, 돌아갈 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운전도 몇 년 하기는 했지만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장롱 면허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왔다갔다한 친정집까지의 길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니 할 말이 없습니다. 방향치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방향치는 방향치입니다. 책망 받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동정 받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일종의 개성이라고 최근 바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면밀히 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부지런히 길을 묻거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나가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궁리해 살고 있습니다. 네, 방향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0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타임 카드를 없애겠습니다. 어린이 동반 출근을 허락하겠습니다.

3

눈물 흘린 그날

많이 있었네요. 처음 참여한 '중국의 중고교 일본어 교사 연수회' 수료식에서 현지 사무국을 도와 준 자원봉사자 선생님과 연수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며 흘린 눈물. 처음 초빙한 중국의 교육 행정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일종의 회원이 가족처럼 녹아 하나가 된 광경을 보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데…… 라는 복잡한 생각에 흘린 눈물. 중국에 인솔하여 간 여름 캠프 참가 학생들이 현지에서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다가 다행히 회복했을 때 흘렸던 안도의 눈물……. 지금 하는 일은 '마음'과 만나 '순수' 해 질 기회가 많아요. 거기에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최고의 오피스 런치

(배달 전문) "釜寅"의 장어 돌솥밥. TJF 단골 회의식입니다만 중국에서 오신 손님에게도 평판이 좋네요.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 따뜻하고, 맛이 좋고, 돌솥 스타일이 새롭고, 영양 만점에 양도 많고 식재료가 일본 음식다우며 국물이 진한 점 등이 인기의 비결.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난 왜 태어났을까라고 괴로워했던 10대, 장차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일까라는 비장함과 초조함에 사로잡혔던 20대. 고민할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온 30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문득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여러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라고. 그러한 만남이 "인연"이며 "인연"에 의해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단련되었습니다. 솔직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냥 여기에 내맡기고 싶어요. 수연(隨緣 : 불교 용어. 인연에 의해 어떤 일이 생긴다는 뜻).



7

1

내가 쓴 기사

TJF의 facebook에 올린 글의 리치 수가 862명으로, 처음으로 500명을 초과한 것이 제 자랑입니다!
 기사는 2013년 4월에 쓰쿠바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 「글로벌 시대의 일본을 산다」의 보고.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과 목표 등 강연 내용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차례차례로 날카로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믿음직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건

출장지 하얼빈에서 타고 가던 택시가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친 것. 다행히 다치지지는 않았습디만, 그 이후 신경이 예민해 저서 속도를 내는 운전기사님을 만나면 넌지시 "죄송한데요, 차열미 때문에 그런데 좀 천천히 가 주시겠어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때로는 필요한 법.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나까요.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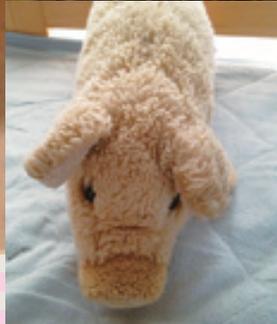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출장지인 베이징에서 먹은 전복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이틀 동안 호텔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상사의 통역도 할 수 없었던 것.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복 알레르기가 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5

내가 편애하는 것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돼지 인형이나 장식물이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스펀지로 매우 리얼한 돼지 인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현관에도 화장실에도 돼지 장식물, 침대에는 돼지 인형이 몇 개씩 놓여 있습니다.



長江春子

나가에 하루코



내가 쓴 기사

1

'Click Nippon'웹 사이트의 'My Way Your Way' 시리즈 기사. 특히 동일본 대지진 1년 후 "후쿠시마에"라는 제목의 시를 쓴 중학교 3학년 료타 군에게 시에 담은 마음과 생각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에 "이나바(因幡)의 흰토끼(전래 동화)에 나오는 부들의 이삭처럼 부드럽게 감싸 주어 말하고 싶어진다"고 제 인터뷰를 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다가가는 이 시리즈는 인터뷰 후 자신의 능력 부족을 통감하고 자주 의기소침해 지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더 없는 최고의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6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첫 중국 출장. 상대측의 초청으로 하게 된 식사. 상대방대표의 인사 후 건배. 다음은 이쪽에서 인사를 하고 건배. 그 후 환담 하면서 식사. 평소대로 맥주를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연회도 종반으로 접어들 무렵, "지바 씨, 마음대로 아무때나 마시면 안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건배를 한 다음에 마실 수 있습니다"

네에 —— ?!! 빨리 말해 줘요오 —— !!

창피해 죽겠다. 죄송합니다.

혼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테이프 전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IC 레코더 전사?) 이번 호 "역대 사무국장 인터뷰"에서는 총 13 시간의 인터뷰를 전사하였습니다. 1 시간은 대략 1만자입니다. 이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프리웨어 (free software) "Okoshiyasu"(이름 짓는 센스가 끝내주세요: 전사는 일본어로 '테이프 오코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따온 이름. 의미는 전사하기 쉬워요라는 뜻). 여러분도 꼭 한번 써 보세요.

9

지바 미유키

千葉美由紀



2

최고의 오피스 런치

최고는 아니지만 제가 만든 도시락입니다. 책을 읽거나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하거나, 매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맛있는 점심이 먹고 싶어지는 일도 가끔은 점심 먹으러 가자고 권해 주세요!

7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나의 손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손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차갑대요" 지금까지 몇 명에게서 들었는지..... 그렇지 않아요.



12
년째



3

눈물 흘린 그날

괴로웠다. TJF의 20년사를 만들었던 날들. 특히 권말 자료 편. 방대한 자료의 조합 작업, 데이터 정리. 이전 사무실이었던 신주쿠 고층 빌딩 26 층에서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넓은 사무실에 남은 건 나 혼자……. 디자인을 맡아 주었던 Y 씨와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 모두 의식이 몽롱……. 수화기를 든 채 의식이 희미해진다. 잊지 못할 그 때.

첫 번째 감동의 눈물은 중국에서 개최했던 일본어 교사 연수회에 참가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TJF 연수에서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눈물 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의 연수가 이렇게까지 사람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사무국장이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 밖 배움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10

여기서 백화 나무 가지를 팔고 있었다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큰소리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사진은 모스크바 시내의 대중 목욕탕 앞.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백화 나무 가지. 사우나에서 몸을 두드리는 데에 사용합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는 고르바초프 서기장. 처음이자 마지막 소련 방문이 되었습니다.

8

내가 편애하는 것

27을 계속 더해 나가는 것. 27의 배수는 54, 54의 배수는 108, 108의 배수는…… 이렇게 더해 나가면 432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씨익 웃고……. 거기에서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 3456. 마음 속에서 히죽히죽. 27의 쾌감을 뛰어넘는 숫자가 있을까 하여 두 자리 숫자만 보면 이렇게 배수를 계산해 봅니다.



27,54,108.....

5



깜짝 놀란 사건

호주 학회에서 'Click Nippon'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A 씨와 출장 갔을 때의 일. 대학교 콘도에 일본어 교육 전문가 O 씨와 A 씨, 나 이렇게 3 명에서 묵었습니다. O 씨가 귀국하기 전날 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샤워를 했는데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는 것입니다. 짐을 꾸리던 O 씨는 웃으며 저를 도와 주었습니다. 힘껏 수도꼭지를 돌려 "아, 움직였다!"고 말한 순간 멈추기는 커녕 힘차게 온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도꼭지 채로 뿔뿔히 버린 것입니다!! 샤워실 유리문은 뿌여지고 실내는 열기로 뜨거워 졌습니다. 수도 밸브 같은 것을 발견했지만, 온수가 냉수로 바뀌었을 뿐……. 바로 경비원이 왔지만 물을 뒤집어쓰고 전신이 흥뻑 젖었습니다. 20분 가까이 샤워를 벌인 끝에 결국 전화로 동료를 불렀습니다.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나타난 동료 경비원은 수도 밸브를 찾아 천장 안쪽이며 정원이며 이곳저곳을 기웃기웃. 그 사이에 옆 침실도 점점 침수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리자를 호출하고 우리 셋은 옆 콘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또 한 사람이 도와주러 와서 물은 무사히 멈추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싫은 얼굴 하나 하지 않고, 불평 하나 없이 도와 주신 분들을 보며 호주는 정말 마음도 넓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소란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던 A 씨. 담차합니다!

4





8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밴드부에서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긴자 실버 퍼레이드라는 행사에 참가했을 때의 것입니다. 곡은 우리 밴드의 대표곡인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 마치'



내가 편애하는 것

센베이는 잘게 씹었을 때 조각조각 부서져 잇몸에 박힐 정도로 막 구워진 바삭바삭한 것보다 습기가 들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굳어진 상태의 것이 좋다. 그렇소이다! 걸봉을 뜯어서 1~3 일 놔두는 정도가 좋다. 깨물면 "이런, 이걸 좀 굳은 게 아닌가?"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딱딱해서, 용기를 가지고 턱에 힘을 주고 깨물면 "모오릿(글썩이 개인의 표현임)" 한 느낌과 함께 심상치 않은 압력에서 잇몸이 해방되는 그 일련의 흐름이 좋다. "모숫(글썩이 개인의 표현임)" 한 느낌과는 다르다. 그걸로는 어딘지 부족하다. 카타르시스가 중요한 것이다. 세상에는 시케타 센베이(녹녹하면서 딱딱한 느낌의 센베이)와 누레센베이(녹녹하면서 말랑말랑한 센베이), 누레오카키(녹녹하면서 촉촉한 느낌의 쌀과자)를 동렬 선상에 놓고 논평하는 우리도 있지만, 그건 포크 커틀렛과 돈가스 덮밥의 재료를 비교하는 바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된다. 센베이국 같은 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완벽하게 '녹녹한'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시케파(시케타 센베이를 사랑하는)는 그러한 생물이다.

2 최고의 오피스 런치

그거야 선배님이 사 주시는 점심이죠! 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답지요. 이걸로 끝내면 좀 허전하니까 사무실 근처의 가게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코쿠지 입구 (역이 아닌 철쪽)에 있는 파출소 옆, 수수하지만 정통 사누키 우동을 즐길 수 있는 "讚岐屋"를 추천합니다. 머릿속이 온통 우동인 날은 매일 다른 종류를 500엔 전후로 맛볼 수 있는 "싯토쿠(試得) 우동"을 먹으러 발길을 옮겨 보는 건 어떨까요?



Senbei

3 눈물 흘린 그날

지금까지 몇 번의 교류 사업에서 학생 인솔 및 현장 지원 등 참가한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일본어와 한국어 등의 공부를 계속하거나 "일본에 유학 왔어요"라고 전화를 직접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10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 접대를 위한 최적의 맛집,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마시고 싶어지는 가게 등, 직원의 지식을 총동원해 전국 식도락 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테다!



7 風 4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연(颯)으로 바뀌었
습니다. 연은 순풍에도 역
풍에도 높게 날아오릅니다.

깜짝 놀란 사건

어느 해의 일입니다. 스피치 콘테스트 "말해 보자 한국어"의 회장 예비 조사를 위해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을 방문했습니다. 당일은 스태프로 조정실 등에 출입하기 때문에 홀 담당 자에게도 인사를 해 두려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경력 등을 묻자 "전 씨는 ○○대학에 음악 전공으로 유학 온 분". 왠지 아는 사람 같다는 예감이 들어 이름 과 연주하는 악기를 물으니 바로 내가 한국 유학 시절 오케 스트라에서 함께 연주했던 친구였습니다. "야, 철수 (가명)!" 무대에서 마이크 부르니 "모리 형?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대답과 함께 우리는 감동적인 해후를 하였습니다. 그 가 도쿄로 유학 와서 취직도 일본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곳에서 재회를 하게 될 줄이야. 깜짝 재 회 이후 자주 만나고 있냐하면..... 그건 아니고요, 요 전날 서울에서 있었던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 축의금 내는 곳에서 우연히 또 만나 "일본에선 안 만나고 어째서 이런 곳에서 만나는 거야"라 고 서로 핑계를 대는 관계가 계속되 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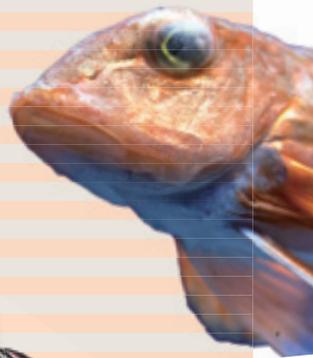


森 亮 介

모리 료스케

6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통신 장비 상태가 이상해서 사무실 전 체 전화, 인터넷이 불통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실은 그 중 한 번은 제 설 정 미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 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9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어떤 사진도 한층 돋보이 게 해 드립니다.



1 내가 쓴 기사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읽으실 이 글이 베스트 1입니다.



2

최고의 오피스 런치

가구라자카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Azzuri"에서의 점심. 경이로운 양입니다. 돼지고기 그릴을 시키면 손바닥 크기의 로스가 무려 3 장이나!! 또한 빵 뷔페! 그런데도 값은 아주 저렴합니다. 배고플 때, 또는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싶을 때 꼭 가 보세요!

10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1 개월 장기 휴가를 낼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지식입니다. 버려진 고양이를 간과할 수 없는 가족 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친정에는 항상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분께서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착각하셔서 매년 버려진 고양이가 늘어나는 처지가... 멜론용 상자는 감자용 상자든간에 마당 한쪽 구석에 놓인 상자 속 내용물은 언제나 고양이입니다. 탯줄이 붙어 있는 갓 태어난 고양이에게 우유를 사람의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게 하고, 엄마 고양이 대신으로 탕파(보온 물주머니)를 놔주고, 함께 놀며 정서적인 면도 키우고..... 몇 마리 훌륭하게 길러 냈습니

다. 한창 때는 20 마리 이상이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양이 인구가 너무 많아 한 마리가 감염되면 전원 감염, 당뇨병 고양이에겐 매일 인슐린을 놓고 (이것은 어머니 담당)..... 그러나 고양이의 생명을 챙기는 일은 우리집 제일의 도리였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 내 유급 휴가의 대부분은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는 데에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고양이 지식이 축적!! 그렇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9



내 방을 점거한 고양이들

柴田 幹子

시바타 미키코



4

깜짝 놀란 사건

이전 신주쿠 사무실의 광대한 넓이. 입사 면접 때 너무 사람이 없어서 "오늘은 쉬는 분이 많은가요?" 라고 묻자 "다 나오셨는데요."라고 들었을 때.



5년째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현재 여러가지로 마음이 산란하여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유행이었던 이탈리아병에 감염되어 매년 여행을 다니던 무렵. 본고장의 햄이 끝내줘!! 와인 최고!! 밤낮 없이 먹고 마시기 (대학 학생 식당에까지 잠입)를 계속, 항상 뒤룩뒤룩 살찌서 귀국했었습니다.

내가 쓴 기사

facebook에 『외국어 학습 표준』의 판매 상황을 보고한 기사입니다. 『외국어 학습 표준』 3,000 부가 한꺼번에 사무실로 배달되어 왔을 때 태산처럼 쌓인 높이에 이것을 정말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판매만이 아니라, 인터넷 상으로 아시아, 멀리는 이집트에서도 주문이 들어와 재고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크리스탈 코끼리 장식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전화기와 코드를 분해해 청소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려 수화기는 본체와 떨어져 있는데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잠시 수화기에 대고 외치고 있었다.

눈물 흘린 그날

연하장 수신인 라벨 작성을 위해 엑셀로 데이터 작업을 하다 보니 시트 수가 20 개가 넘어 버리고 지나친 데이터 양에 엑셀도 워드도 잇달아 멈춰 버렸습니다. 세상 밝은 크리스마스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때인데 일은 안 풀리고, 마감은 다가오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골수염까지 걸린 제 처지가 참으로 한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편애하는 것

장지뱀 (かまちょう)을 좋아해요. 손으로 잡으면 눈을 감고 죽은 척하는데 호흡을 위해 얇은 피부가 물결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을 느낍니다. 편안하게 일광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데 도쿄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섭섭해요.

8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원 때, 호주 멜버른에 유학하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대학교 기숙사가 만실이어서 셰어하우스에서 1년 보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벌써 10년 이상이 되었지만 이때는 마당에서 남십자성을 바라보며 피우는 담배 한 대가 최고였습니다!!

깜짝 놀란 사건

외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회가 저의 TJF에서의 첫번째 일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담배를 싫어하신다고 몇 번이나 듣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던 호텔 객실이 흡연실이었을 때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호텔 측의 실수였음이 밝혀져 다른 객실로 안내받았지만 시작부터 실수를 저질러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을 졸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방이 준비될 때까지 강사 선생님들과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잠시 후 옆 자리의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헉! 이럴수가' 하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흡연이 가능한 가게였던 것입니다. 바로 가게를 나와 정신없이 다른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연수 전날의 사건이었습니다.

4

눈물 흘린 그날

2012년도에 실시한 '한일 중고생 교류 프로그램-SEOUL'에서 댄스 댄스 댄스'는 한국 신문사에서 취재를 올 정도로 주목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형태의 기사 내용을 만들기 위해 저와 젊은 기자분, 둘이 머리를 맞대고 마감 직전까지 고쳐 썼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참가 학생들을 제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취재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통감한 사건이었습니다.

3



10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기술 향상, 자기 계발, 또는 창조적인 휴식, 몸과 마음의 회복(리프레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간은 반년 ~ 1년!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인복을 타고났다는 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왔는지요. 빨리 도움을 주는 쪽이 되고 싶은데 전혀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네요. 왠지 불공평한 것 같아 싫지만, "그런 별자리 아래에서 태어났으니까 받아들여요"라고 친한 친구가 일러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하나 누군가를 위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혼자 할 수 있어요."라고 거절당할 것 같아서 못하고 있지 만요.

9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주최 단체의 장과 협력해 주신 선생님들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로부터 수고했다는 한마디에 기쁨과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려 그만 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그토록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던 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뒷풀이 자리여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싶었는데 눈물이 영 그치지 않아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中野敦

나카노 야스시

내가 편애하는 것

저에게는 좋아하는 커피잔이 있습니다. 같은 커피라도 그 잔에 마시면 커피가 한층 맛있게 느껴집니다. 커피에는 맛있게 마시기 위한 최적의 양과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은 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만 형태에서 중요한 것은 공기에 닿는 표면의 면적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입을 대는 부분의 질감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집에 있는 잔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커피잔 없으십니까?

5



★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부끄러운 실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것은 어떤 장소를 연수 회장·숙박 시설로 예약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취소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내 인생 처음으로 시말서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회사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런 실수는 괴롭습니다.

6



★

내가 쓴 기사

월간 「영어 교육」 2013년 8월호 [릴레이 연재] 다언어 세계로의 시선 ... [제 5 회]에 기고한 '외국어로부터 『인어(隣語)』에' 입니다. 기사는 영어 선생님들에게 영어 이외의 언어 또는 폭넓게 말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취지의 연재에 게재 된 것입니다.

주로 TJF가 해 온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한국어·중국어 교육과 한국·중국의 일본어 교육을 소개하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이웃의 언어라는 생각을, 사회의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 타이밍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

靄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가치관, 방법 및 도구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구름의 정해진 형태가 없는 것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 자신과 겹쳐져 (동경?) 이 말을 골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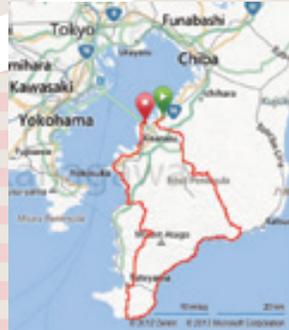
7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몰두하는 성질"

9 캐리어 앵커가 '챌린저'라서 매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철저한 리서치 → 마음껏 잘 실행 → 지나치게 열심인 모습에 주위는 질림 → 조금 외로운 기분이 됨, 이것의 반복입니다. 지난해에는 인도 요리 (만드는 쪽), 올해는 자전거. 골든위크 전에 구입한 로드바이크로 8월은 주말마다 100 km 주행, 9월 들어서는 200 킬로미터를 빙속에서 15 시간에 주파하고 성취감에 젖어 있었더니 주위의 반응은 쓴웃음 & 질려하는 기미. 거기에 보소반도가 자전거로 달리기 쉬워 좋다고 10월에 지바 가까이로 이사한 시점부터는 부드럽게 무시당하고 있다…….

I Love Cycling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언어와 문화, 가치관의 '다름'을 즐기고 때로는 참고, 또는 능숙하게 받아 넘겨,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고 폭력에 호소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 상황은 당연한 것 같지만, 아이들의 눈에 비친 일본 사회는 이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하는 초조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미즈구치 씨의 나이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요요기 공원에서 평화와 관용의 축제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젊은 사람들의 귀와 눈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기쁠 겁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사과 기념일" 기부 캠페인은 그 첫 걸음. 지금 바로 검색하여 참가하세요!

눈물 흘린 그날

3 때로 주르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작은 만남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순간을 같이하게 되면, 이런 일을 알게 되어 좋았다~ 며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7 살피고 (어!?) 관찰하고 (어머~) 고찰하고 (음~) 추측하고 (흠~) 성찰하고 (오오오) 통찰하여 (아~) *창왕찰래 (라고 하는 것은 ...)라는 사이클을 머릿속에서 항상 조용히 돌리고 있으니깐요. 꽤 내성적이지만 (특히 대인관계면) 저돌맹진형의 사람과 한조가 되면 좋은 브레이크 & 브레이크 인이 됩니다. 러브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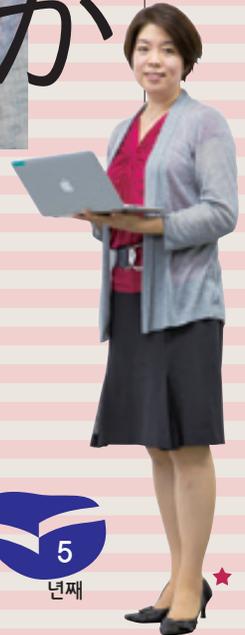
8 23살. 테레사 수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에서 한 달간 도우미 일을 할 때 세탁물을 양철 지붕 위에 널어 말리고 있는 중.



10

安藤まどか

안도 마도카



내가 쓴 기사

1

"Takarabako" 28 호 "도시락 - 먹는 즐거움, 전해지는 따스함 -" 최근 "Bento(도시락)"는 세계에서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쿨(멋지다)!" 이렇게 놀려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일본을 대단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국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본 문화 소개로는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젊은 독자가 "나도 이런 화려하고 예쁜 Bento를 만들 수 있을지도!" 하며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사를 목표로 했습니다.

4

깜짝 놀란 사건
첫 번째 급여 명세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미국 출장 중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자버려, 다음날 아침 약속 시간이 5 분이 지나 호텔 로비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벌떡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3 주간 혼자 북미 5 개 도시를 돌며 일을 하고, 6번째 도시에서 상사 2 명과 합류한 다음날 아침의 일입니다. 안심할 만큼 편안한 상대도 아니었던, 그만 긴장이 풀려 버린 것 같습니다.....

6

2

최고의 오피스 런치

호주의 고등학교에 일본어 수업을 견학하러 갔을 때 선생님이 운동장 한쪽 구석에 설치된 BBQ 그릴에서 캥거루 고기를 구워 맞이해 주신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5

내가 편애하는 것

30 센티 자. 직장의 데스크는 물론, 왠지 집에도 각 방에 한 개씩 상비. 재질, 두께, 끝 가장자리까지 눈금이 있는 타입인지, 눈금의 종류 (센티 / 인치 / 양용) 등 '잘생긴' 자를 고를 때 세세한 편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는 것은 다이소에서 OK입니다만, 의외로 선물 가게에 좋은 물건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스무 살 때 호주 여행에서 구입한 에어즈락 사진이 붙어 있는 자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O 형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DIY 및 종이 공작, 요리 등 정밀도가 질에 영향을 끼치는 놀이에서는 물건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강한 애착이 있어 부엌에서 사용하는 계량 스푼 & 컵, 전자 저울 등도 엄선하여 구입, 사용할 때마다 황홀하게 바라봅니다.

나의 be

8



Fight!

실은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체육 대회 : 모두가 동경하는 체육 대회 응원단으로 당일 분투하고 있는 샷입니다. 햇볕에 너무 타서 친구한테서 "시커먼스" 라고 놀림 받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분투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사진에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자기 사진에 자기가 코멘트를 달다니 지금 보면 부끄럽네요.

깜짝 놀란 사건

어제 제 캐비닛 안쪽에서 "헤이세이 6년(1994년)" 날짜가 적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19년간 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년 전……. 당시 저는 4 살. TJF의 역사에 조금 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했습니다.

4

내가 편애하는 것

5 민티아 소다맛.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면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것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주 "쉬는 날은 뭐 했어?" 라는 질문을 받는데 대부분은 어머니와 집에서 놀아요. 어머니와 돌이서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웃곤 합니다. "다른 모녀도 이럴까?"라고 가끔 어머니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9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

선배가 미국에서 선물로 커피 원두를 사다 주시며 "커피 분쇄기에 갈아 각각 드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비교적 시간이 있는 저는 선배님들에게 막 갈아 향이 진한 커피를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작은 한 봉지를 갈아, 커피 메이커에 그 한 봉지 분을 넣고 평소처럼 물 7 잔 분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 무 연한 커피가 되어 버렸습니다. 작은 봉지에 들어 있던 원두는 '1잔 분'의 양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7 배의 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설탕과 우유를 넣는 저는 마시면서도 눈치 채지 못했지만요…….



6

사무국장이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이 될 무렵에는 이미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웃음).

7

夏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여름 태생 (6월 후반이므로 초여름?) 임에도 여름에 굉장히 약합니다 (지쳐 버려요). 그렇지만 여름이 좋아요 (활기 넘치는 거리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개그 콤비 "사마 ~ 즈"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도 그래요.



내 고춧가루. 매운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10

st 1 of 10

10×10+10...

사무국장님 이하 10명의 스태프 (+이사장님
과 상무이사님)가 best 1 of 10을 고백합니다.

1

내가 쓴 기사

아직 학생일 때 (라고 해도 몇 달 전까지 학생이었습니다) TJF 스태프 분에게 「유학 체험담을 한번 써 보면 어때요?」라고 듣고 썼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유학 갔던 저는 유학한 이유, 느낀 점이나 경험 한 것 등을 썼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TJF에 들어와 TJF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지바현 중국어 토요일 강좌에 대해 쓴 것이 직원이 되어 쓴 첫 번째 기사입니다.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으로서도 직원으로서도 기사를 쓰게 해 주셔서 기쁘기도 하고 또한 감개무량하였습니다.



宮川 咲

미
야
가
와
사
키



최고의 오피스 런치

아직까지는 어떤 곳도 맛있는데요, 첫날 선배가 데리고 가 주신 고단샤 사내 식당에서 먹은 점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통근, 첫 근무, 처음 간 고단샤, 첫 사내 식당, 첫 점심! 메뉴도 재료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채 포토포 정식. 당근, 감자, 양파, 돼지고기. 맛은 좀 싱거웠던 편. 무엇보다 긴장을 풀어 주려고 말을 걸어 주신 선배의 따뜻함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2



3

눈물 흘린 그날

2013년 12월 말에 TJF가 개최한 '한일 중고생 교류 프로그램'에 한국·한국어·K-POP에 관심 있는 일본 학생들이 많이 응모해 주었습니다. 사무 작업을 돕는 가운데, 학생들의 참여하고 싶은 마음과 한국에 대한 열정 등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TJF가 기획 운영한 제 1회 "한어교 : 일본 고교생 여름 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제 모습이 겹쳐지며, 열심히 보내주는 학생들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제 마음에 뭔가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응모 동기를 읽었다면 울었을까도 모르겠어요.

일본국제문화교류재단 통신

no.100

수수께끼 TJF



특집

10×10+10...

公益財団法人
国際文化フォーラム
THE JAPAN FORUM
日本国際文化交流財団
일본국제문화교류재단